

보도시점 (온라인, 지면) 2025. 12. 11.(목) 15:00

산불의 상처가 겨울에 더 깊어지지 않도록, 경북 산불 피해지역 안전관리 실태 점검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1일(목)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올해 3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의성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- 김광용 본부장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을 방문해 동절기 화재 대비 소방·전기·가스 설비를 점검하고,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개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.
 - 의성군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산불 당시 환자 150명을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했으며, 이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환자 대피 과정에서 겪는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.
- 이어,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관덕1리 경로당과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을 방문해 겨울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 - 지난 봄 산불로 전소되었던 관덕1리 경로당의 등 복구 상황*을 점검하고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여 난방비 적극 지원도 당부했다.
 - * 복구비 3.2억 활용, 지난 10월 공간 확대 등 복구 완료
 - 또한, 혹한기 대비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의 출입구 등 빙판길 예방 조치여부 및 전기요금 감면* 등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했다.
 - * 입주 시부터 최대 18개월 동안 월 20만원 한도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폭염·한파 등 기후재난 대응이 우수했던 17개 지방정부*를 선정했다.

* (광역)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충청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
(기초) 서울 성동구, 부산 사하구, 인천 중구, 광주 동구, 대전 대덕구, 울산 동구, 경기 광명시, 강원 태백시, 충북 진천군·증평군, 전남 화순군, 경북 의성군, 경남 밀양시

○ 이날 현장에서 최우수 지방정부 중 하나로 선정된 경북 의성군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장과 특별교부세(2억원)를 교부하는 등 주민 안전에 힘써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.

○ 이는 재난·재해 대응에 기여한 지방정부 등에 대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른 것이다.

□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한파와 같은 기후재난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”라며, “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예방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	책임자	과 장	김진희 (044-205-6360)
		담당자	서기관	손승남 (044-205-6369)
	사회재난실 보건사회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영빈 (044-205-61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섭 (044-205-6157)

